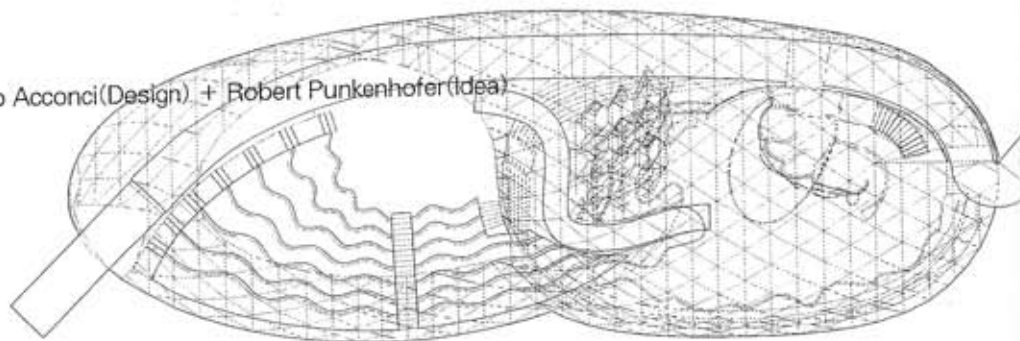


The Island in the Mur

Vito Acconci(Design) + Robert Punkenhofer(Idea)



무르강 위의 은빛 비늘

언제나 강은 평화롭게 흐른다. 하지만 아무 사연없이 마냥 흘러가는 강은 없다. 그라츠의 무르강에도 도시에 얽힌 사회적 갈등들이 숨어 있다. 무르강으로 인해 나뉘진 그라츠 동쪽에는 전통적으로 귀족과 중상류층이 살아 왔고, 서쪽은 '빈곤층을 위한 신개발구역'이라는 말이 드리내듯 빈곤한 노동자들이 살아 왔다. 이러한 경향은 지금까지도 지역간의 계층 차별의식으로 여전히 일부분 남아 있는 것이 현실. 이런 배경으로 인해 무르강 인공섬은 그라츠 2003의 건축적 이벤트라는 대외적인 명분과 함께 내부적인 도시의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 임무를 갖는다.

아이디어를 제안했던 로버트 폰켄호퍼와 이를 형상화시킨 비토 아콘치는 이런 상황들을 등에 업고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단순한 구조물보다는 '충돌'을 '화합'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무형적인 요구와 환경에 어울려야 된다는 시각적 요구는 결국 형태와 공간에 나타난다. 강 위의 구조물로 그 형태는 제2의 물결인 양 여러 겹의 스킨이 3차원적으로 소용돌이치는 모습이다. 이런 과정에서 인공섬은 '인공'이라는 말을 소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풍경에 녹아들어 자리하고픈 욕망은 형태와 더불어 주변과 하나로 읽혀지는 공간의 유연한 흐름으로 표현된다. 또한 야외공연장의 객석, 카페의 인테리어 등 하나의 통합된 이미지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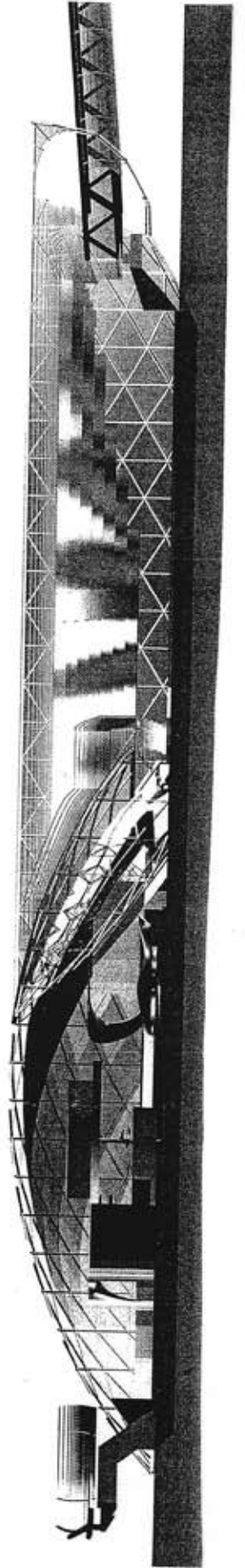
무르강 인공섬은 또 다른 풍경으로서 새로운 시야를 제공한다. 강 한가운데 수면과 동일한 높이에 테이블을 두고 유리 한 장을 경계로 강을 보며 차를 마신다는 것, 창과 스킨의 프레임을 통해 산 위의 고성을 바라본다는 것. 일상적인 풍경도 무르강 인공섬을 필터로 바라본다면 새로운 풍경으로 다가온다. 인공섬의 골격과 스킨은 빛을 조각내고, 수면은 다시 이 조각을 산란시키고, 이것이 다시 인공섬의 표면에 반영된다. 인공섬은 빛과 물이라는 주변 환경과 상호 소통하며 새로운 시각적 유희를 보여준다.

인공섬이라는 하나의 포인트가 무르강 일대의 색깔을 바꿔 놓았다. 대외적으로 쿤스트하우스의 그늘에 가려져 제 빛깔을 내지 못했지만, 무르강 인공섬은 주변 풍경과 분위기, 그리고 그곳 주민들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획의도 중 하나였던 지역간의 통합이 이루어질지는 좀더 지켜보아야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만으로도 무르강 인공섬은 이미 '인공'은 아니다.

S
P
A
C
E

OCTOBER 2003 www.vmspac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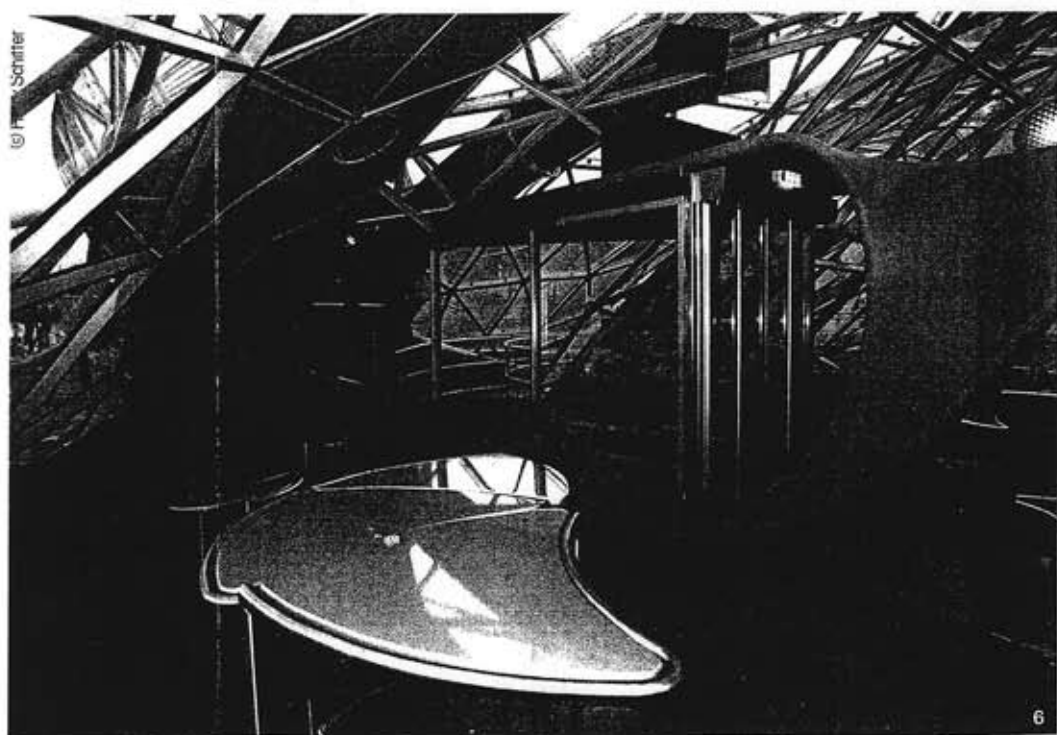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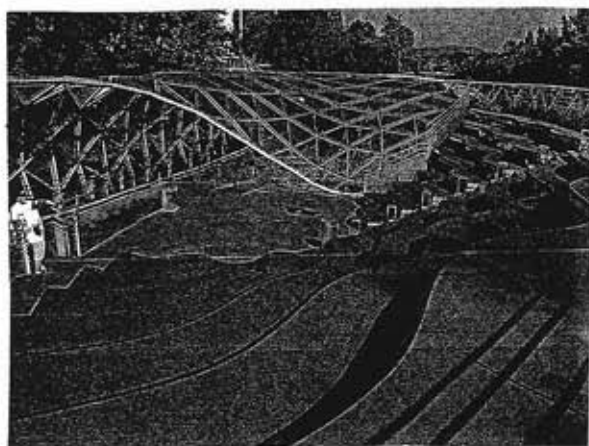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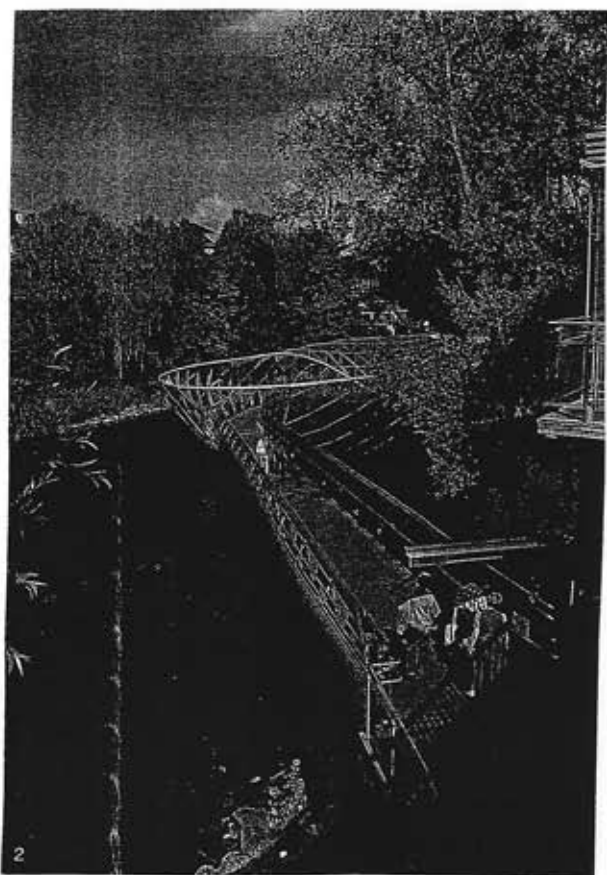
공간 4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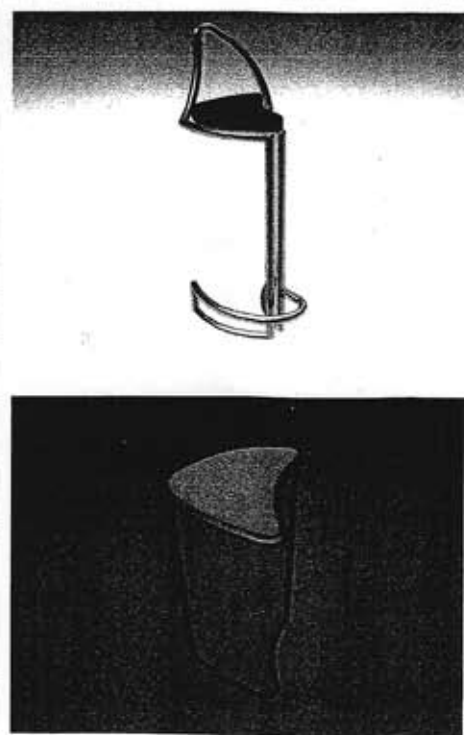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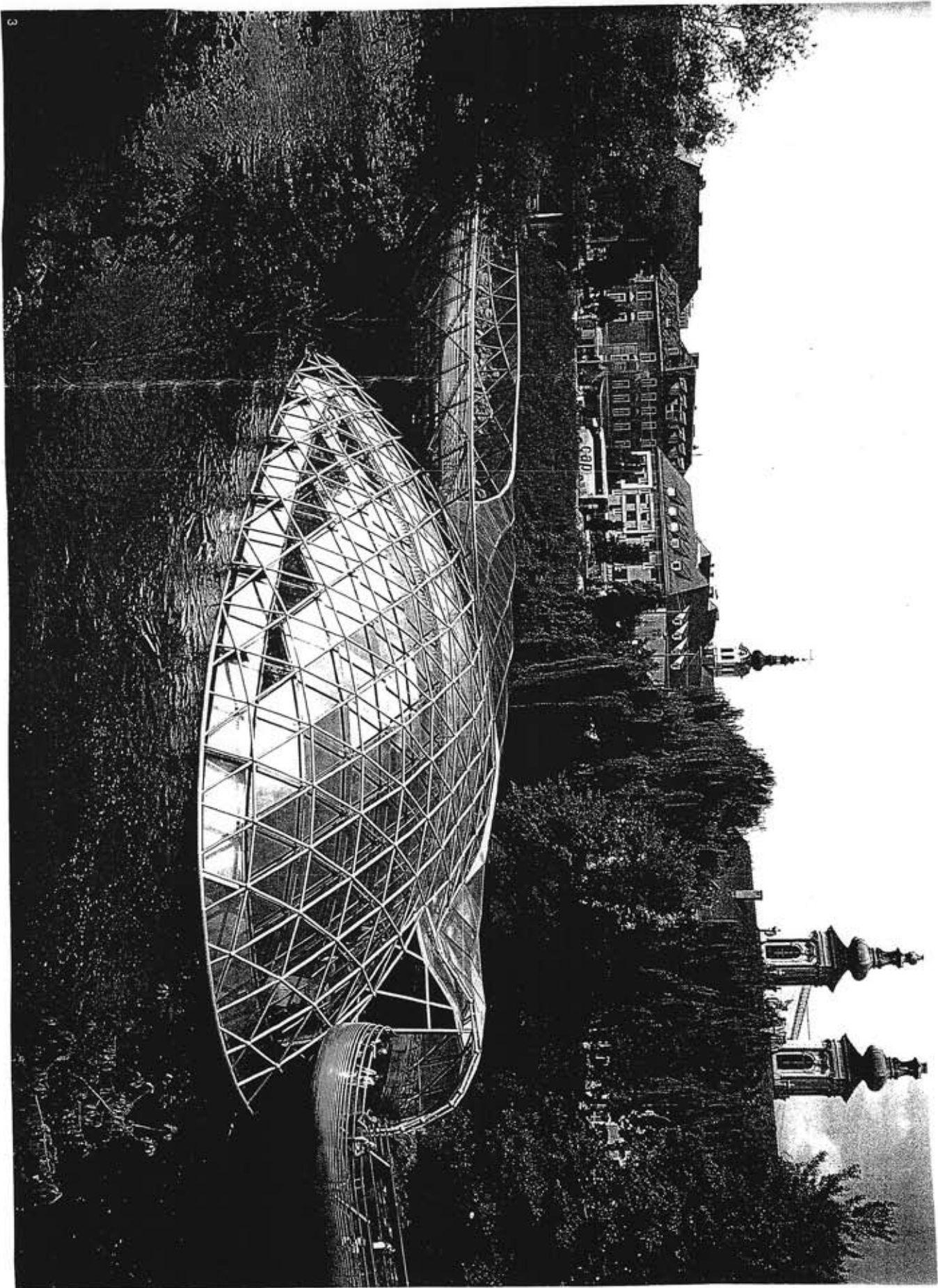
1. 인공섬 내부의 가로 모습
2. 인공섬 안에서 바라본 바깥 풍경
3. 야외 공연장
4. 야경
- 5+6. 인공섬 내부의 카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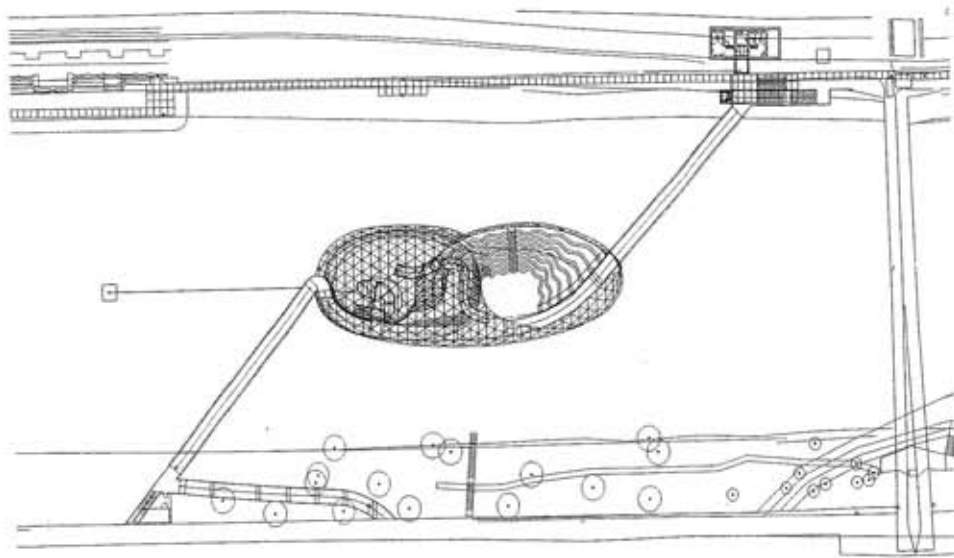


© H. Schmit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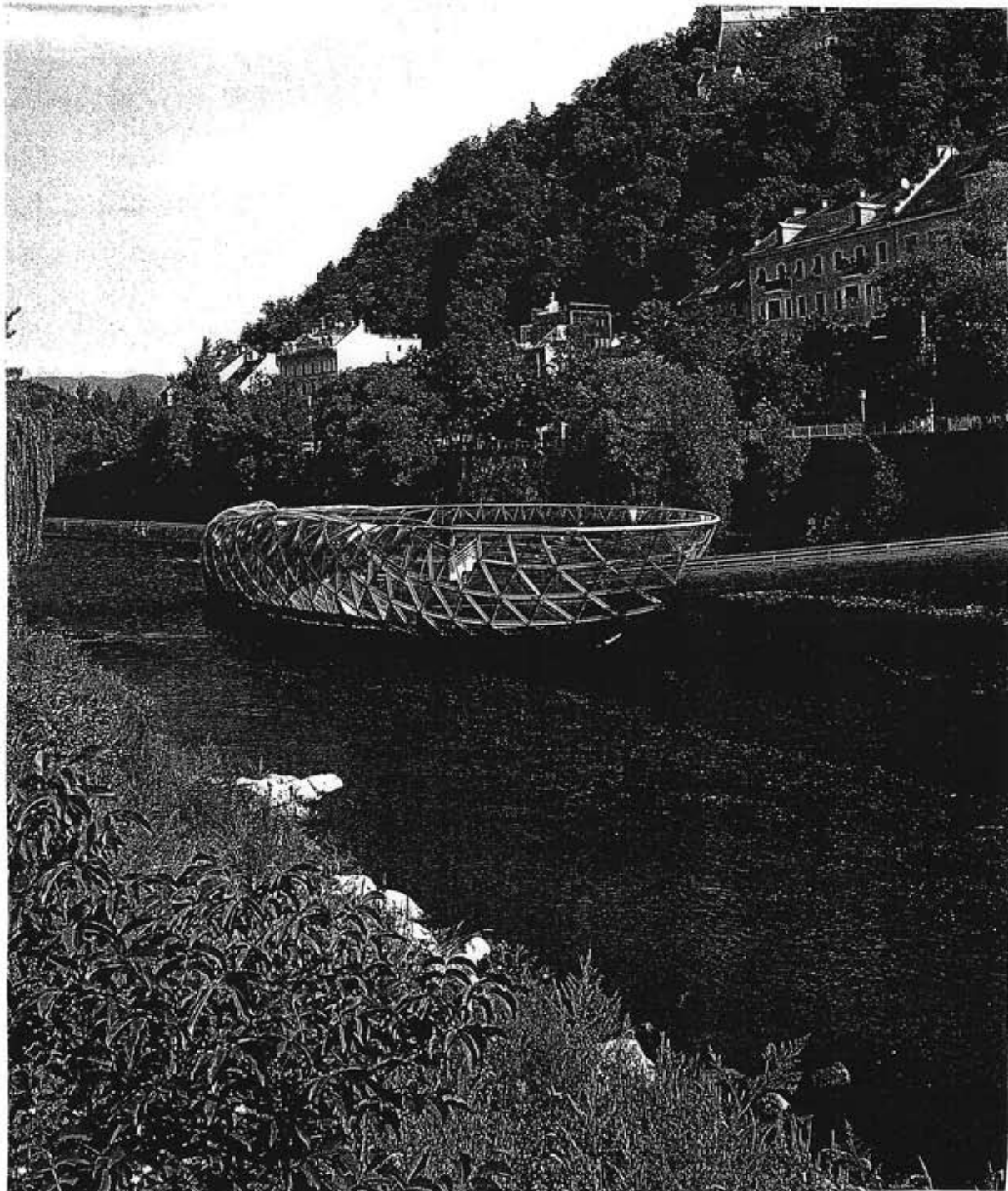




1+3 주변 풍경 속에 위치한 인공섬
2. 인공섬 연결 브리지



Site Plan



General Planning: Kurt Kratzer

Design / Architectural Implementation: Vito Acconci

Idea / Curatorial Development: Robert Punkenhofer

Cafe Insel Design: Acconci Studio + Purpur

Cost: 5 million Euro

Components: Cafe 160m² / Playground 40m² / Theatre 240m²

Capacity: Cafe 100 persons / Theatre 200 persons

Measures: Length 46.6m / Width 16.6m /

Pontoon Height 1.25 or 2.57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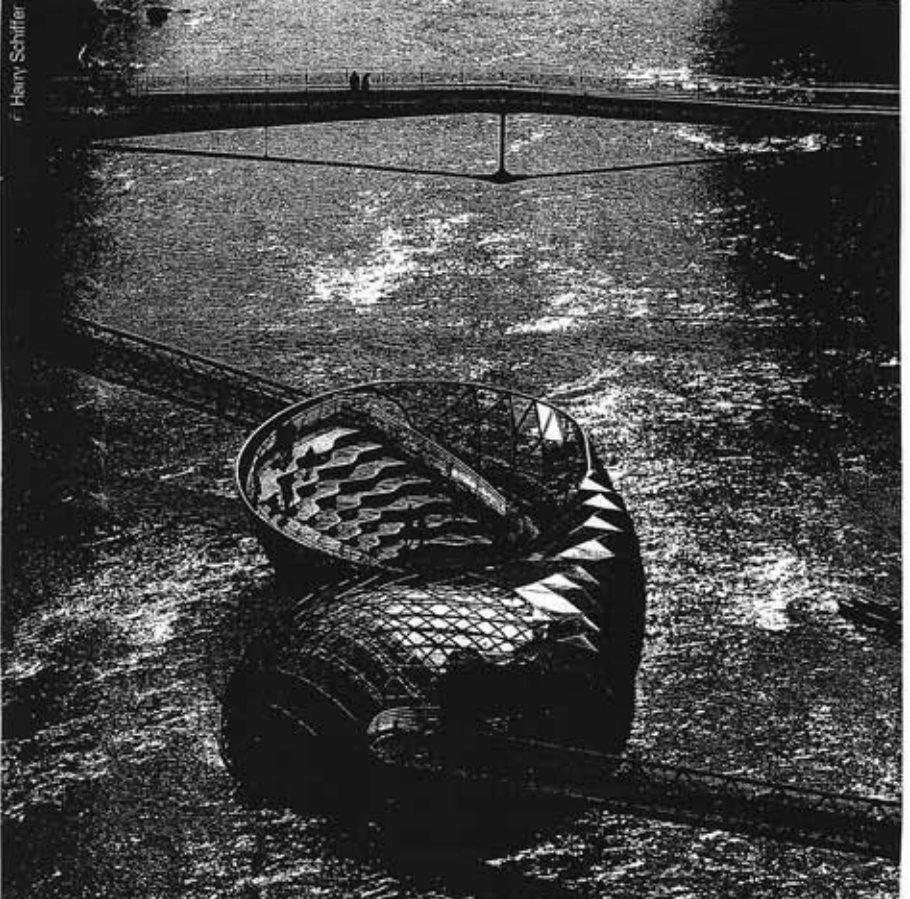
Weight: Pontoon 170 tons / Access Bridges 60 tons /

Grid 47 tons / Access ramps 20 tons / Audience Area 25 tons /

Overall 322 tons

Photography: Park, Sung Jin

© Hany Schiffer



1+2. 무르갯 한가운데 떠 있는 인공섬의 모습

